

닭고기 요리시 기름기제거, 토막내기, 껍질제거에 번거로움 커

—닭고기 소비행태에 관한 조사결과 밝혀져—

본회는 90년대 들어 급속한 육류소비량 증대에 발맞추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식품인 닭고기의 공급을 위하여 마케팅 전문 조사기관인 인사이트 리서치(Insight Research)를 통하여 닭고기 소비행태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주소비계층이 분포한 서울과 수도권 도시소비자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인원은 800명 이고 모집단의 연령은 10세 이상 50대까지의 소비자를 무작위추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닭고기를 요리할 때 가장 번거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닭고기를 직접 요리해 본 경험이 있는 253명의 응답자 가운데 34.8%가 기름기 제거를 1순위로 꼽았고 그 뒤를 이어 14.2%, 13.8%, 10.7%의 토막내기 힘들다, 껍질 벗기기, 깨끗이 씻는 것 순으로 이들 4가지가 전체의 73.5%나 되었다. 그외에 소수 의견으로 내장 꺼내기, 닭냄새가 싫다, 질기다, 뼈 바르는 것 등이었다.

기름기 제거를 번거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특별시(36.3%), 광역시(35.9%) 거주자로 30대(37.3%), 40대(36.9%), 고졸(39.6%), 가구소득이 300~400만원(39.5%), 200만원 미만(36.4%), 취사담당자가 30대(38.6%), 그리고 닭고기 소비비중이 높은 층(41.5%) 등에서 보다 많았다. 또한 토막내기 힘들다는 사람(14.2%)은 광역

시(17.9%) 거주자로 10대 후반(100.0%), 20대 초반(20.0%), 대졸이상(19.1%), 400만원 이상 가구소득자(26.5%), 취사담당자가 50대 이상, 닭고기 소비비중이 중간이하에서 보다 많았고 껍질 벗기기를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특별시(14.6%), 광역시(17.9%) 거주자 중 20대 초반(20.0%), 30대(15.5%), 대졸 이상(17.6%), 가구소득이 300~400만원(20.9%), 400만원 이상(14.7%), 그리고 닭고기 소비비중이 높은 층(17.1%)에서 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들이 닭고기를 요리할 때 번거롭고 귀찮아 하는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닭의 도계시 기름기의 완벽한 제거, 절단육·부분육 판매의 확대, skinless, boneless 상품의 개발 등이 해결 과제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추어 나가야만 국민 건강을 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닭고기의 소비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들은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순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닭고기는 간식 위주 소비는 늘고 손님접대는 상대적으로 줄고 있어 가정소비 보다는 외식소비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10대에서 냉동품 가공 닭고기 기호도가 매우 높아 간식 뿐만 아니라 주식으로서의 닭고기 소비에 청신호를 보였다. 특히 30, 40대 취사담당 주부들은 냉동가공 닭고기를 맛이 있고, 요리가 쉽고, 값싸게 구입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다. 조사에서는 동네슈퍼, 백화점, 할인매장 또는 편의점의 순으로 구입처가 조사되었다.

닭고기 구입처로는 동네 닭집, 정육점 등 주거지와 가까운 위치의 늘 다니던 곳에서 습관적으로 구입하고 있었으며 위생적이며, 가격이 싸서, 고기가 좋아서 등 비교적 합리적인 경쟁요소는 구입처 결정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신문, TV 등 매스컴의 비위생에 관한 역기능의 보도는 소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반증했다. 그럼에도 구입시 고려사항으로는 위생, 깨끗이 처리된 정도, 신선도, 유통기간, 보관상태, 상표부착 여부 등에 관심을 보여 크기, 무게, 가격 조건 보다는 상위의 조건으로 조사돼 과거의 소비패턴에 비하여 품질 요인이 가격요건 보다 구매결정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닭고기를 먹은 경험을 묻는 질문에 월간 집에서 1.2회에 비해 외식업소에서 1.8회로 닭고기 외식소비 선호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뼈없는 후라이드 치킨, 닭갈비, 닭불고기 등에 대한 닭고기 제품 기대가 컸으며 특히 취사 담당자들의 닭구입 패턴이 40, 50대 주부에 비해 20대 신세대 주부의 뼈없는 닭고기 선호 경향이 뚜렷함을 보이고 있었으며 젊은층 주부들일 수록 책임감이 높은 브랜드가 있는 메이커 닭을 찾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페이지 계속>

<앞페이지에서 계속>

닭고기의 소비자 인식은 △가격이 저렴 △입맛에 맞아 △고기가 연해 △성장발육에 좋아서 △요리하기가 쉽다 등으로 나타난 데 비해 쇠고기는 단백질이 많다, 고기냄새가 좋다, 고기가 연하다, 저지방이다, 노약자에 좋다, 저칼로리이다 등으로 나타났으며, 돼지고기는 입맛에 맞는다, 요리하기 쉽다, 값이 싸다, 단백질이 많다, 고기냄새가 좋다 등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세계인의 식품으로 선진국에서 소비가 폭발적으로 신장되고 있는 백색육(white

meat) 닭고기를 효과적으로 소비촉진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결과 닭고기의 3저1고(저지방, 저칼로리, 저콜레스테롤, 고단백) 우수성을 소비자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타육류와 닭고기의 차별적인 우수성 홍보를 위해 지속적인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활동을 닭고기 관련 전 업계가 참여해 실시해 나가야 할 것으로 결론지었다.

본회는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10월 중순 이후 업계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계열입식물량 감축효과

-주간10%씩 감축, 병아리값 하락에 기여-

본회 회원사들인 계열주체는 지난 9월 16일(월) 본회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최근 닭고기 가격의 하락으로 업계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9월 들어 사료 가격 인상, 경기후퇴에 따른 사회불안으로 닭고기 소비가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육계농가 입식열기는 계속 과열되고 있어 계열주체 스스로 계열입식을 줄이기로 결의하고 주간 입추 예정 물량에서 10%이상 의무적으로 줄여나갔다.

동회원사들은 부화장과 현재 계약된 병아리는 그대로 인수하고 각사별로 예정 입추수수의 10% 이상을 협회로 내놓아 유통상인을 통해 판매하여 9월 24일까지 약 50만수를 수당 350~400원에 판매하여 닭의 산지시세와 비슷하던 병아리가격을 하향 조정시킬 수 있어 가뜩이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육계업계에 조금이나마 한숨을 트이게 할 수 있었다.

한편 최근 반등한 육계산지가격의 인상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으로 10월 초순에 출하가 예상되는 닭들은 다른 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병아리가 입식돼 일시적인 물량 부족 상태가 발생, 야기된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MMA 수입물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계열주체의 비축물량이 5백60만수에 이르고 일부 군납물량까지 합치면 약 1천5백만수의 비축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다가 소비측면에서도 큰 호재가 없어 현가격의 유지는 단기간내에 끝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육계계열업체 힘든 가격경쟁

육계계열화업체들이 일반 유통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이 과중해 가격경쟁력이 취약,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육계계열화업체들이 중소기업규모를 유지, 실질적

인 수입과 지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반면 일반 유통업자들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을 개설하고 시세차액을 노린 단기 유통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세원노출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닭고기 유통업자들은 야간도계를 통해 신속한 처리를 하고 있어 판매망 구축이 시급함에 따라 소규모 판매상과 거래시 세원노출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 불명확한 거래관행에 따라 소득을 줄여 신고해 세금을 포탈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유통업자들의 유통관행에 따라 일반 닭고기 유통업자들은 1~2일 단기판매로 비위생적인 닭고기를 유통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계열화업체는 양성화된 거래에 따라 세금을 전액 납부하고 위생확보를 위해 도계과정에 각종 닭고기 위생처리과정이 추가되어 도계비는 상승되고 있는데다가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고 위생닭고기를 생산, 유통시키고 있어 일반유통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에 뒤지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료용 곡물수입 5백70만톤

금년들어 7월 현재까지 옥수수수를 비롯한 사료용 곡물수입량은 5백69만9천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수입된 사료용 곡물중 옥수수는 4백32만6천톤, 호밀 91만7천톤, 소맥 27만3천톤 등 모두 5백69만9천톤의 사료용 곡물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별 수입량을 보면 미국 4백25만7천톤으로 가장 많았고 EU 39만톤, 독일 20만2천톤, 캐나다 18만8천톤 순이었다.

육계불황타개 대책회의 개최

-계열주체, 종계장, 농가대표자 병아리 감축 결의-

육계불황 타개를 위한 대책회의가 지난 10월 2일(화) 오후 2시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계열주체 관계자, 종계·부화인, 육계 생산농가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해 지혜를 모은 이날 회의는 장기화되고 있는 육계산업 불황을 조기에 끝내기 위한 의지에 따라 열띤 논의가 있었다.

최준구 양계협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는 협회측의 관련 통계자료 설명과 참석자들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금년도 육용종계 입식상황이 94년 대비 21%, 95년 대비 22%가 각각 증가했고 C.C 생산잠재력은 96년 10월 이후 97년도 전반기까지 폭발적인 증가를 예견하고 있는데 금년 북 이후 냉동비축물량이 약 1천5백만수에 달해 상당기간 육계가격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 육계 사육농가는 향후 사육을 자제하고 신중하게

입식을 하기로 결의하고 종계·부화업계는 조기노계도태, 병아리감산에 노력하는 한편 최근 종계사육수수가 증가하고 있는 계열주체들의 병아리 감축을 강력히 요구했다.

참석자는 일부 종계·부화장에서 연간 필요한 종계 4백5십만수중 50% 가까이 환우를 실시해 종계 숫자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는데다 장기간 400원대 이상의 병아리 가격으로 인한 기대심리가 병아리 생산을 과감히 줄이는데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도태노계가 다른 장소에서 재사육되지 않게 노계전문 도계장을 통한 노계도태 실시, 부화기 가동 중단, 종란의 식란처리 등 실질적인 감축노력이 아쉽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산감축 뿐만 아니라 범 업계가 나서 대대적인 닭고기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해 사회 분위기에 따른 닭고기 소비부진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도계산업 발전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실

본회에서는 최근 3D 업종의 기피현상으로 부족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60여개의 도계장중 상위 30개 업체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희망인원과 고용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희망인원은 165명인 반면 현재 고용실태는 총 9명으로 집계되어 부족한 인력난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96년초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전국 도계장에서 고용요

청 신청 결과(약 200여명 필요) 지역별, 회사별 총 15명 정도 실습생 고용 승인이 났으나 10월 2일 현재 한 회사에도 합법적인 채용이 이루어진 곳은 없는 실정이다.

국내 도계업의 경우 3D 업종으로 모든 사업장은 노동력을 구하기 점점 어려운 실정이며 이와 관련 위생적인 도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도계장의 외국인 고용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현실이다. 이민법이 까다로운 미국의 경우 도계 노동력에 영주권 특혜를 주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외국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사료곡물 방출

일본 농수산성은 세계적인 곡물 수급 압박으로 미국의 기말재고량이 사상 최저 수준인 16일분(4.4%)까지 떨어짐에 따라 곡물 선적작업의 지연에 대비해 최근 비축곡물을 방출하기 시작했다.

일본 농수산성은 세계적인 곡물수급 압박에 대비하고 단경기중 사료곡물의 안정공급을 위해 햇곡물이 출하되는 9월부터 11월동안 옥수수 40만톤과 보리 30만톤을 방출한다고 밝혔다. 농수산성은 또 올해는 예년에 비해 곡물의 생육이 지체되어 수확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U, 사료·산업용 곡물 증가

유럽연합(EU)의 사료와 산업용 곡물시장에 지난 7월부터 보리 햇작물 공급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으며 유럽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한 사료곡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보리시장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고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의 사료곡물 수확실적이 좋았지만 사료곡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가격동향을 보면 맥아용 보리시장은 물량이 풍부해져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으나, 옥수수 가격은 미국의 재고량 부족 발표로 국제시장의 옥수수 가격의 상승에 편승해 유럽의 옥수수 가격도 상승했다.

계육산업 수출산업화 육성가능

-정부의 확고한 수출산업 육성의지 필요-

지난달 1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국회의원 초청간담회에서 체리부로 김인식 사장은 국내 육계산업과 양돈산업을 비교, 수출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양돈산업도 4년 전 양돈업계의 전반적인 수출불가 분위기에 돌고 돌고 정부 확고한 정책지원에 힘입어 돈육

수출 4만톤, 2억불의 수출산업으로 성장한 선례가 있음을 역설했다. 따라서 국내 위생계육, 부분육, 가공품 중심의 생산방식 확립과 유통정책 등을 바탕으로 정부의 확고한 수출산업으로의 육성의지가 있으면 향후 4년간 계육 4만톤 수출의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사료 전문생산업체 급성장

배합사료의 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 비해 양계, 양돈 등 일부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의 생산실적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사료협회의 비회원사가 대부분으로 올 8월까지의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약 47%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규모는 전체 사료시장의 5% 미만이나 육계사료는 하림, 도드람 등이 18%를 차지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육추사료는 하림, 오경, 한성 등 3개 업체가 전체의 7%를 점유하고 있고, 산란계사료는 오경, 한성 2개 업체가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양돈은 도드람, 한성, 낙농·비육은 이지시스템이 생산실적을 성장시키고 있다. 이

와관련 업계의 마케팅 담당자는 '올해의 급성장이 한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경영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비롯됐다'며 내년초에 집계되는 총생산량을 지난해와 비교할 때 50% 이상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95년 수입축산물 780톤 불합격

95년도에 수입된 닭고기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운데 검역과정에서 위생불량으로 불합격판정을 받은 후 소각되거나 반송된 물량이 총 7백80.9톤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부 산하 동물검역소의 95년판 동물검역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된 축산물 가운데 검

역과정에서 위생상태가 나빠 불합격판정을 받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각각 2백4.1톤, 2백52.4톤으로 전체 수입 축산물 불합격판정 물량의 58%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이 돼지다리(73.1톤), 닭고기(65.0톤), 오리고기(51.9톤) 순이었다.

북한, 가축사료로 수선화 이용

수선화가 북한에서 가축용 사료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수선화에는 프로틴, 섬유소, 지방질, 인, 칼슘 등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아미노산 조성으로 볼 때 콩으로 만든 먹이에 가까워 사료로서의 활용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다년생 관상용 화초이자 약재로도 이용되고 있는 수선화를 가축용 사료로 이용토록 권장하고 있다고 북한 정부 기관지 민주노선 최근호를 빌어 보도했다.

북한 정부는 수선화가 오수에 의해 오염된 웅덩이에서도 잘 자라며, 오염물질 흡수는 하지만 축적하지 않고 오히려 분해시켜 웅덩이 바닥에 침전시키는 작용도 한다고 강조, 수선화를 널리 번식시켜 수질오염도 방지하고 가축사료로도 널리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내 도계기업계 최초!!!

● 정부 품질인증(EM마크)획득!

● 국산 신기술(KT마크)획득!

- 태진기계는 정부에서도 품질을 보증합니다 -

- ▲ 자동도체 이양기
- ▲ 자동도체 개복기
- ▲ 자동도체 가슴절개기
- ▲ 자동도체 기도 및 소낭제거기
- ▲ 자동도체 향문절단기
- ▲ 자동도체 내장적출기
- ▲ 자동도체 최종검사기
- ▲ 자동도체 종량선별기

- ✦ 하자보증기간 : 3년 ✦ 즉각적 부품조달 및 A/S
- ✦ 국산기계구입자금대출 대상품목(3년거치 5년분할상환)



주식회사 태진기계

본사, 공장 :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덕도리 832
TEL : (0351)871-9001~4, FAX : (0351)871-9005

하반기 육계생산 전년비 7~8% 증가추세

-병아리 생산잠재력 커 당분간 육계가격 하락-

사회의 전반적인 경기 후퇴로 닭고기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닭 생산이 95년에 비해 7~8%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돼 최근 계육 산업 불안의 장기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본회가 금년도 배합사료 생산을 역산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육계사료소비의 경우 전반기에 전년 대비 3% 정도 신장되었으나 하반기 들어 7월 7.6%, 8월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9월까지 7% 수준의 닭생산이 증가했고 이중 계열주체 입식량은 35~40%에 달하고 있다. 이는 매년 시장 확대에 따른 자연 증가로 닭소비가 5~6% 늘어나

는 것에 비해 큰 차이는 아니나 급격히 위축되는 소비를 감안하고, 96년 전반기 종계입식 수가 예년의 10% 이상을 상회해 10월 말 이후 초생추 생산잠재력을 볼 때 닭값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현재의 불황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수입냉동 MMA 물량, 계열주체 비축분, 군납업자 냉동 닭을 감안해 약 1천5백만수(추정)가 창고에 비축되어 있어 업계는 불황의 조기종식을 위한 병아리 생산 감축 방안 모색, 육계 농가의 신중한 입식, 대대적인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활동 전개가 시급한 현실이다.

계약농가 안정소득 확보에 관심 커

일반 육계농가들은 적정소득 확보의 어려움이 계열화사업 불참요인중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협중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계열화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13개 농장을 대상으로 계열화탈퇴 이유를 조사한 결과 과반수인 7개 농가가 '적정 소득이 보장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4개 농장은 '계약서상 불리함' 때문이라고 응답해 계약사육에서 탈퇴하는 주요 원인이 적정소득의 미 확보와 계약관계의 불리함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다른 이유로는 '경영능력 발휘가 어려워'라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육계농가 시설개선 후 계열주체에 계약 요구가 많아져 계열주체들은 이의 선별에 많은 고심

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다수의 많은 계열사육 농가는 자가노동을 활용해 사육에만 전념하고 능력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계열사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전북양계축협, "계림마을" 상표등록

전북양계축협(조합장 이기동)은 『계림마을』이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정식 등록하고 조합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이 상표를 부착해 판매키로 했다.

전북양계축협이 계열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준공한 식품공장에서는 현재 일일 4만수의 닭을 도계·가공하고 있으며 완주군 이서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계란집하장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공급하는 일일 40만개의 계란에 『계림마을』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게 된다.

『계림마을』은 전북양계축협이 지난 88년 설립 당시 모체였던 『계림회』라는 양계인들의 모임 명칭에서 따온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하림의 KS닭고기, 영육농산의 YY치킨, TS 해마로의 파파이스치킨, 대연식품의 새물내치킨, 한일농원의 MM치킨, 한국 153농축의 처갓집 양념통닭 등 다른 계열화업체에서도 자사의 상품명을 사용하고 있다.

닭고기 세균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성본부가 시중에 유통중인 닭고기에 대한 세균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가뜩이나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계관련업계는 검사결과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9월초 모 방송에서 폐사한 닭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후 식품의약품안전성본부가 시중에 유통중인 닭을 수거해 살모넬라 등 세균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육계관련업계는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만약 살모넬라 등 세균이 검출되는 검사결과가 나오면 육계산업 붕괴의 위험까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계열업체에서는 최근 닭값이 폭락하자 비축물량을 늘리는 등으로 인해 비축량이 1천5백만수(MMA 물량, 군납 물량 포함 추정)에 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검사결과에 따른 파문이 이어진다면 닭고기 소비가 더욱 감소해 육계산업은 희생하기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육계, 전염병 발생시 보상비 지원을

육계계열농가에서 법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계열주체와 농가가 피해액의 1/2씩 각각 부담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는 생산비 증가 요인으로 경쟁력 저해요소로 지적되고 있어 정부의 보상비 지원 현실화가 요구된다.

소와 돼지의 경우 법정전염병이 발생하면 종전의 기준대로 한다 하더라도 쇠가의 80%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반해 양계업의 경우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이후 법정전염병에 감염되면 일부 보상을 해 주고는 있으나 종계에만 한정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육계농가에 대한 보상비 지원이 시급하다.

농가는 법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공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살처분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연간 4.5~5회전을 해야 하는데 비해 이 중 1회전을 법정전염병으로 도태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4회전에 그치게 되고 여기에 사료값과 피해액 50%를 공제할 경우 생산비는 상대적으로 높아져 경쟁력을 잃고 있는 현실이다. 이 밖에도 전염병 살처분에 대한 보상이 없다보니 일반 농가에서 전염병 발생시 농가의 일방적인 손해가 되기 때문에 조기출하 등으로 질병전파가 만연되며, 방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농림부, 질병병성감정실시기관 확대

농림부는 지난 9월 20일 가축 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에 따라 전국대, 강원대, 전남대, 경북대, 제주대 등 5개 대학을 확대 지정하였다. 이와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되면 여러가지 정보제공과 같은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지정 대학에 대한 추가 지정을 신청토록 당부했다. 이로써 가축 질병병성감정실시기관은 5개 대학을 포함 수의과학연구소, 동물검역소, 시·도 가축위생시험

소, 중앙가축연구소, 바이엘 코리아, 한국미생물 연구소, 미원 축산과학 연구소, 제일사료, 대한제당 등 모두 15개로 늘어났다.

대연식품, 창립11주년

96년을 『제 2 창업 원년의 해』로 정한 대연식품(대표 한형석)은 지난 9월 27일 창립 11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전 임직원 및 사육농

가 대표 등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거행됐으며 이날 기념일을 맞아 이사로 승진한 신현구 인티 1본부장을 비롯하여 5명의 특진과 모범상·공로상 등 각분야의 우수 사원 및 농가에 포상을 하였다.

또한 동사는 '제 1 회 용인시민의 날' 및 '제 11회 용구문화제'를 맞이하여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용인시로부터 자랑스런 용인의 기업인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민의 날은 용인시가 군에서 시로 승격되어 처음 맞이한 행사로서 앞으로도 동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브라질, 닭고기 수입규제 제소

브라질이 EU의 브라질산 닭고기 가슴살 수입규제를 문제삼아 WTO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닭고기 업계는 EU가 2년전 사료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책이라는 명목으로 닭고기 가슴살 수입에 대해 톤당 3백달러의 특별관세를 부과했는데, 현재 사료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관세를 폐지하지 않고 있다고 EU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브라질은 95년에 EU로 닭고기 가슴살 3만3천4백44톤, 닭고기 3천7백70톤을 수출했다.

깨끗하고
신선한 닭고기-



MIWON 미원마니커주식회사

신선하고 깨끗한

HAIMARROW

에마로치킨

Chicken



(주)TS에마로

TS HAIMARROW Co., Ltd.

종계노계 출하 알선사업 실시

-종계수수 감축과 회원사간 협조위해-

본회는 최근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닭고기 산업의 불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닭고기 생산량 감축 조절과 닭고기 소비 촉진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지난 9월 16일부터 2주일 동안 계열입식물량을 10% 감축하였고 육계업계의 불황을 조기 타개하기 위하여 종계노계의 조기 도태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회에서 회원사 노계 전문도계장을 알선하고 있다. 이 사업의 실시로 종계노계의 경우 중계상에 의해 다시 종계로 둔갑하는 경우를 차단하고 계열주체와 위탁도계 전

문도계장의 회원사간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종계 감축 효과와 유통상인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협회 회원사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

본회는 종계 출하 계열주체와 회원 노계 전문도계장을 직접 연결하여 노계 출하에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닭고기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닭고기 요리 대회를 11월중 개최기로 하고 준비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사료용옥수수 5만3천톤 수입계약

김영삼 대통령의 남미 4개국 순방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축협중앙회 송찬원 회장은 지난 9월 9일 아르헨티나 카길사 대표인 휴고 다니엘 크랭과 사료용 옥수수 5만3천톤(미화 8백50만불)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연간 8백만톤 이상의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부분을 미국산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가격상승시 물량 확보 및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

으나 이번에 남미의 옥수수 주요 수출국인 아르헨티나와 현지 구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사료곡물의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하는 한편 구매효율 향상에도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아르헨티나업체는 축협의 이번 현지구매가 양국간 무역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자국산 사료원료의 한국수출이 늘어나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난 9월 17일에는 퓨리나, 제일제당, 대한제당, 미원 등의 대기업들이 같은 지역인 아르헨티나에서 옥수수 5만2천5백톤의 구매계약을 체결했고 사료협회 부산지소에서도 5만2천5백톤의 옥수수원료를 구매했다. 미국사료곡물협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와 계약체결한 업체들의 경우 톤당 1백54.4달러로 내년 5월 22일 선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사료협회는 톤당 1백53.5달러에 체결했고 내년 7월 27일 국내유입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 가금육처리장 총71개소

일본의 농수산성 통계처리부에서 발표한 '95년도(12월 30일 현재) 전국 가금육 처리장 수는 71개소로 집계, 발표되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3개소가 감소된 것으로 육계처리장은 4곳이 감소된 반면 노계처리장은 39곳이나 감소되어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 가금처리장 마다의 물량은 85톤이 증가한 6,109톤으로 밝혀져 규모 면에서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금년 2월 1일 현재 육계사육호수는 3,610호로 사육수수는 1억1천8백50만수로 집계되었다.

닭고기 우수성 라디오 광고
KBS-2R 오후의 대행진
15:00~15:30

에 이 비 안

대한양계협회 능력검정 '94, '95 2년 연속 1위!
에이비안은 육계농장 계열주체 에 더 많은 이익을 드립니다.

 (주)증원농장

영업부 TEL(0417)567-7792, FAX(0417)554-0771

화이트 미트의 시대!

KS닭고기회사

하림이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회사

(주)하림
HALIM & CO., LTD.